

보도시점 2026. 2. 13.(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6. 2. 12.(목)

전기 소비 적은 설 연휴... 기후부,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 연휴 기간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상황 사전 점검
- 기후부,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합동 설 연휴 경부하기 점검회의 개최

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2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 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설·추석 연휴 낮 시간대 등)

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경부하기)에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일반적인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 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기상청 기상 예보(2월 9일 18시)에 따르면 올해 설연휴 기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설날 당일(2월 17일) 전력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는 37.6GW로 전망되어 작년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인 35.8GW(2025년 5월 4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날 연휴기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 계획,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 체계, △기타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설 연휴 경부하기는 전력수요가 낮은 가운데 기상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교한 전력망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추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설 연휴 경부하기 점검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류영규 (044-203-3934)



□ 회의개요

- 일 시 : '26. 2. 13(금) 14:00 ~ 15:30
- 장 소 : 한전 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후부 : 전력망정책관(주재), 계통운영혁신과장 등
 - 유관기관 :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 주요내용

- 설날 연휴 기간 전력수급 상황 및 공급 과잉 해소 조치 계획
- 비상 상황에 대한 출력제어 등 기관별 설 경부하기 대응 체계 점검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 모두 말씀	전력망정책관
14:05~14:35	(30')	• 기관별 발표	
		- 설 연휴 전력수급 상황 점검	전력거래소
		- 전력망 설비 안정성 검토	한전
		- 원전·양수 정비 시행 계획	한수원
14:35~15:25	(50')	• 토 의	
15:25~15:30	(05')	• 마무리 말씀	전력망정책관